## KBS부산 시청자위원회 9월 의견

-박정희

**○ 뉴스9 마지막 꼭지, 한문장 뉴스·제목 담지못한 내용 등 빈번**

- 〈뉴스9〉 마지막 뉴스가 제목 내용만 담은 한문장 뉴스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보여, 전체적으로 뉴스가 갑자기 마무리되는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 특히 8월 29일 〈범어사 신임 주지 보운스님 진산식…일부 승려 반발〉은 제목과 달리 보운스님 진산식 소식만 전했 뿐 일부 승려 반발이나 사유 등 내용은 담기지 않았고, 9월 14일 〈경성대 교수 36명, 조교 폐지에 보직 사퇴〉도 제목과 달리 경성대가 조교제를 폐지했다는 소식만 전해 눈에 띄었습니다. 확인해보니 29일 뉴스는 다음날 아침뉴스에서는 좀더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었고, 14일 뉴스는 같은날 〈뉴스7〉을 보니 조교제 폐지에 따른 교수 반발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뉴스 시간 등을 이유로 뉴스 내용을 줄인 걸로 추측됩니다.

- 하지만 메인뉴스에서 이처럼 뉴스가 툭 끊겨 보이거나, 제목과 다른 소식을 전하는 것은 뉴스 완결성을 떨어뜨리는 걸로 보였습니다. 제대로 소식을 전하기 어려운 경우 뉴스에서 빼는 대신 다른 단신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제목이라도 정정해 시청자에 전달하는 정보를 충실히 했으면 합니다.

**○ 엑스포 유치 행보 적극 보도한 반면, 시민 안전 이슈는 단신 처리해 아쉬움**

- 2030엑스포 기본계획서 제출 등 유치 일정이 본격화 되면서 KBS뉴스에서도 주요하게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달 엑스포 유치 관련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것은 'BTS 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 관련 이슈였습니다. 8월 24일 10만 규모로 기장 한국유리 부지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이 발표되자 숙박비 바가지요금 기승, 콘서트 예정지의 접근성과 교통대책, 무엇보다 안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겁니다. 지역 언론사는 물론이고 전국 언론에서도 현장 취재 등을 통해 안전 문제를 공론화했고 결과적으로 콘서트장은 아시아드경기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해당지역은 현장 취재가 아니더라도 부산시민이라면 안전하게 콘서트가 가능할까 의구심이 드는 곳입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개발을 두고 부산시와 사전협상을 진행 중인 지역이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따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은 지역언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들 이었을겁니다.

- 그런데 KBS부산은 이와 관련해 〈BTS 공연 앞두고 바가지 요금 기승…시, 강력대처〉(8/29), 〈엑스포 유치기원 BTS 콘서트 교통대책 등 마련〉(8/30), 〈엑스포 유치기원 BTS 콘서트 '아시아드'로 변경〉(9/2) 기사에서 단신으로만 소개했습니다. 자체 취재를 통한 점검은 없었고, 부산시 대응 등을 위주로 전했습니다. 시민을 비롯

한 콘서트 관람자의 안전, 그리고 심각한 불편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 없이 단신으로만 보도한 것이 아쉬웠고, 이유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 또한 엑스포 유치 일정을 전달하는 보도 외에 시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 점검해야할 점등은 따지는 보도에도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참고 엑스포 보도목록 (8/24~9/19)

8월 27일 <국회, 엑스포 예정지 잇따라 방문…유치 지원>(단신)
8월 28일 <BTS 공연 앞두고 바가지 요금 기승…시, 강력대처>(단신)
8월 29일 <국회도 엑스포 지원 가세…"의원 외교 총력"> (리포트)
8월 30일 <엑스포 유치기원 BTS 콘서트 교통대책 등 마련>(단신)
9월 1일 <부산-전남도-여수-순천, 엑스포 협력 협약>(단신)
9월 2일 <엑스포 유치 기원 BTS 콘서트 '아시아드'로 변경>(단신)
9월 7일 <4개 도시 유치계획서 제출…엑스포 유치 경쟁 본격화>(리포트)
9월 10일 <부산엑스포 유치계획서 요약본 다음 달 공개>(단신)
9월 11일 <엑스포 개최지 결정까지 남은 일정은?>(리포트)
9월 12일 <"부산엑스포 유치" 유라시아 횡단 시민 대장정 시작>(리포트)

**○ 공공언어가 갖는 의미 전달 이슈 이해도 높여 … KBS도 공공언어 공공성 확보에 노력해주시길**

- KBS부산은 부산시의 영어상용화도시 추진에 따른 우려점, 반발을 지속 보도했습니다. '청년 로컬러' '행복한 家 희망드림 프로젝트' '용호 드래곤브릿지' 등 공공사업이나 공간에 한글·한자·영어가 혼용된 이름을 붙여 시민과 소통을 가로막을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9월 12일자 <공공언어 도시 '울산' …"언어는 권리">는 공공기관이 전달하는 언어는 시민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전달해야 한다는 공공언어의 방향성과 사회적 책임을 짚었습니다. 부산시의 영어상용화도시에 대한 단순 찬반의견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왜 논란이 되는지 맥락, 배경을 알 수 있는 보도여서 좋았습니다.

- 또 보도를 보면서, 언론 특히 공영방송도 공공언어의 공공성을 지키는 중요한 주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BS에서 보도 뿐 아니라 방송 전반에서 언어의 공공성, 우리말의 품격을 지키는데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폭우·태풍 등 기후위기 시대 원전 안전 문제에 더욱 관심 가져주길**

- 태풍 힌남노로 인해 신고리1호기가 정지 후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9월 8일 단신 <신고리 1호기 송전설비 손상…원자로 수동정지 후 정기검사>에서 설비손상 원인과 정비 적절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후에 정비 결과 등에 대한 보도는 아직 없습니다.

- 기후위기로 폭우,태풍 강도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의 일시정지·고장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뉴스에서 월성원전 1호기 오염수 누수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원전안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한수원의 원전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부산 인근 원전의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고, 문제발견시 적극적인 보도 당부드립니다.